

정읍시 '정향누리 상품권' 지역경제에 온기

올들어 150억원 판매... 지난해 3배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 도움 환전 비율 92%... 소비 진작 이끌어

정읍시가 발생한 지역 상품권인 '정향누리 상품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2019년 11월 본격 유통을 시작한 정향누리 상품권은 시민들과 소상공인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현재까지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150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에게 판매된 상품권이 실제 소비되어 최종 환전된 비율도 92%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 상품권의 꾸준한 판매율 상승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객이 줄고, 매출이 감소해 상권 회복을 기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다. 정향누리 상품권은 400억원 규모로 모바일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모바일형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카드형은 지역 내 농·축협에서 농협카드 발급 후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46개 지점 또는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으로 모바일 앱 또는 농협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4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과 마트, 미용실, 주유소 등 3500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향누리 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활기가 넘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상품권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내 나무 심기 운동 '느티나무 시민의 숲' 조성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느티나무 시민의 숲'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 나무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느티나무 시민의 숲은 동산동 지역 유천생태습지 3500㎡에 조성된다. 식재될 느티나무는 산림청에서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됐으며 긴 수명과 생김새, 목재 활용도 등이 높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일부 느티나무를 해당 생태습지에 식재했으며 이번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에게 오는 5월 중 나무를 배정해 숲을 완성할 계획이다. 나무 분양신청은 이달 말부터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를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1구좌에 20만원으로 150구좌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내 나무 심기 운동은 출생,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길 원하는 시민이 현수나 기부금을 통해 내 나무를 심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민간참여 운동이다. 지난 2019년에는 인화공원 내 '옛뚝이 시민의 숲'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유천생태습지 내 '재난위기극복 시민의 숲'에 이어 세 번째 숲 조성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854-430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시 에너지자립도시 선포...신재생에너지 사업 속도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시민 주도형 발전사업 첫 삽

군산시가 에너지자립도시 선포식을 개최하며 지역 균형뉴딜과 탄소중립 가속화를 앞당기고 있다. 군산시는 29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함께 군산GSCO에서 민선7기의 핵심 가치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주도형 발전소 건립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 행사에서는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과 우병기 전북도 정부 부지사 등 50여기관 대표가 참석해, 지난 2년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첫 삽을 뜨게 된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출발을 격려했다. 에너지자립도시시는 새만금 육·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GW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및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발전사업의 수익을 주민 및 지역의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가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최초의 출자기관으로, 군산시의 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발



강임준 군산시장이 29일 육상태양광 협약식과 에너지자립도시 군산 선포식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주도형 발전소 건립을 강조했다. <군산시 제공>

전사업에 대한 기획과 시민 투자자 모집 및 이익 배분 등의 업무를 전담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경제 구조 개편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지역 균형뉴딜과 탄소중립

을 가속하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와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공유수면 전사용 허가 및 미군 전파협, 실시계약 협의 등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현재 공사를 시작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읍 중앙로 일대 가로환경시설물 개선 문화체육부 공모사업 선정 '감동거리 뷰터' 사업 진행

고창군이 중심 상업·업무지구인 중앙로 일대의 가로환경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 중앙로 일대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역사문화 감동거리 뷰터' 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됐다. 고창읍 중앙로 일대는 지역 중심 상업·업무지구로, 고창군청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외부관광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장소다. 하지만 특색없는 디자인으로 큰 흥미를 갖지 못했고, 지역민들 사이에서 세계 문화유산 도시에 걸맞은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가로환경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군은 국비 3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중앙로 로터리 조경과 포켓쉼터 설치, 공공시설물 정비 등,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의 중심지에 지역 문화유산과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특화거리를 만들고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21세기 미래 대안 도시 고창'을 향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발돋움...산업단지 기업 입주 잇따라

노암산단 3지구 분양률 96% 1공구 준공 23만평 일반산단 4개 기업 272억원 투자 결정

남원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남원시는 노암산단단지 3지구가 분양률 96%를 달성한데 이어 남원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 기준 약 28%의 기업 투자유치(투자협약)를 달성하고 다수의 기업들과도 입주 협상중이라고 29일 밝혔다.

23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1공구가 준공된 상태다. 이 곳에는 현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를 제조하는 (주)CK안전유리와 모듈러 교실을 생산하는 (주)대승엔에스,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주)LFF 등 3개 기업이 투자 중이다. 또 4월초에는 (주)아시아, (유)경원소프트기계, (유)발리코퍼레이션, (유)수엔지니어링 등 4개 기업이 총 272억원, 8만8000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고 전라북도 및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과 함께 교

통의 접근성,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일반산업단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광주공항, 광양항, 군산항 등 하늘길과 바닷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서남북의 유리한 입지 조건과 분양가격(3.3㎡ 당 32만5000원)이 전북권에서는 가장 낮은 기업들로부터 투자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남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수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남도꼬막' 가공공장 건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꼬막 생산 및 가공 업체인 '남도꼬막'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가공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남도꼬막은 67억원을 들여 국가식품클러스터 1만1689㎡ 부지에 공장을 짓고 다양한 꼬막 가공식품을 만들 계획이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2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남도꼬막은 300ha 규모의 양식장을 직접 운영해 생산한 꼬막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국내 300여개 외식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김경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은 "꼬막산업의 선진화를 이끄는 남도꼬막이 가정간편식(HMR) 시장을 주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